

반월공단, 산업폐수 기준치 초과

경기보건환경원, 17차례 BOD·COD 초과 ... 자체 정화처리 안돼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매월 두차례 반월(4개지점), 시화, 향남제약, 어연한산 등 도내 8개 공단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산업폐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반월공단의 배출폐수만 매월 기준치를 초과했다.

총 48차례의 수질검사 가운데 35%인 17차례나 환경부의 공단폐수 배출기준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120ppm, COD(화학적산소요구량) 130ppm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월 I 지점은 3월 BOD 농도가 무려 1570ppm, 4월 COD농도가 803ppm에 달했다.

반월공단의 배출폐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이유는 공단 자체에서 유해물질이 충분히 정화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반월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모두 시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 정화처리됨에 따라 추가적인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3>